

KT-1 기본 훈련기 터키 수출



국산 KT-1 기본훈련기 완제기와 차기전차 XK-2의 기술이 터키에 수출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6월 21일 터키의 기본훈련기사업과 차기전차개발사업에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로템이 해외업체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터키 국방부 방사청이 현지시간으로 20일 한국의 KAI와 기본훈련기 획득을 위한 계약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터키는 자국의 고유 신형전차 개발사업의 주계약자인 오토카(OTOKAR)사가 ADD와 로템을 부계약자로 해 필요한 기술협력 분야의 우선 협상 대상자(해외업체)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군용 훈련기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2번째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KT-1 12대를 수출한 바 있다. 터키에는 완제기 이외에 훈련·정비 장비 등 부품이 포함돼 있어 계약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번 수출 협상 성공과 관련, “국방 개혁과 함께 개정한 방사청에서 고객 만족도 제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방산품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방산분야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와 국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잉-KAI, 공중조기경보기 양해각서 체결

미국 보잉사는 지난 6월 20일 한국항공우주

산업(KAI)과 공중조기경보기(AEW&C) 개조 및 성능시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 따라 KAI는 한국에 인도되는 B-737 4대 가운데 마지막 기종을 개조하고 항공기 내부에 주요 임무장치 설치,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인도를 맡게 된다.

보잉의 공중·대잠전·정보·감시·정찰시스템 부문 총괄 매니저인 토니 파라시다(Tony Parasida) 부사장은 “KAI는 보잉의 기술을 보완하는 세계적 수준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로 한국은 공중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은 작년 방위사업청과 조종사 훈련 지원, 항공기 및 시스템 개조 등을 포함해 15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첫 기상관측위성 제작 본격 시동

방사청은 지난 4월 23일 국내 최초의 정지궤 도복합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Communication, Ocean, and Meteorological Satellite)’ 개발을 위한 기상탑재체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5차년도 협약을 총괄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황사,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국내 기상위성을 이용한 독자적인 기상관측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차년에 걸쳐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와 함께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5차년도 협약체결에 따라 기상위성의 2008년 말 발사와 2009년 운영준비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은 4개 부처에서 총 사업비 2,8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방사청은 기상관측시스템 개발을 위해 약642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30여년 동안 일본과 미국

등 외국 기상위성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기상 감시 및 예보에 필요한 관측 자료를 제때 취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신해양기상위성이 발사되면 위성에 탑재된 기상관측센서를 이용해 관측주기가 기존 30분(외국 기상위성 이용시)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기상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기상재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 정해주사장,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여 받아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하 KAI) 정해주사장이 지난 7월 3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한-프랑스간 항공산업 협력을 통해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최고의 훈장 레지옹 도뇌르 훈장(Legion d'Honneur)을 수여 받았다.

이 날 수여식은 프랑스 대사관에서 필립 티에보 대사, 프랑수와 뤼로 군수조달청장 등 프랑스 관계자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및 KAI 임원 등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했고, 프랑스 정치, 문화, 경제 분야에서 큰 공적이 있는 국내외인에게 프랑스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훈장으로 프랑스인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훈장이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 나도선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 각 분야 저명인사들이 이 훈장을 수여

받은 바 있다.

KAI 정해주 사장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CEO로서 최근 한국형헬기 개발사업(KHP)을 계기로 한-프랑스간 협력 분야를 기존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핵심 방위산업이자 미래 최첨단 산업인 항공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KAI 정해주 사장은 훈장 수여식 인사말에서 “프랑스 최고의 훈장을 수여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양국의 항공산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상초계기 2차사업 주익 1호기 출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5월29일 사전 2사업장에서 정해주 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2차사업의 주익 1호기 출고식을 가졌다. 해상초계기 2차사업은 우리 해군의 노후한 해상초계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기존 주익의 90%에 해당하는 부품을 신제품으로 제작, 장착하는 등 창정비를 능가하는 전반적인 정비와 개조를 수행하는 것이다.

KAI는 2004년 12월부터 우리 해군의 부족한 해상초계전력 보강과 원제기 정비·개조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장 등을 위해 L-3/COM과 기술도입 공동생산을 계약하고, 지난 2년 6개월간 임무장비의 공동개발과 수명연장작업을 수행한 데 이어 이를 바탕으로 1호기의 주익을 성공적으로 출고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출고된 주익은 해상초계기 2차사업 1호기에 장착되어 내년 7월 우리 해군에 납품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독자 우주기술 자립 추진한다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가 지난 6월 20일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정부위원인 10개 중앙행정기관장(위원장 포함)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국가

우주위원회 결과보고,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의결됐다.

먼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1996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1m급 다목적실용위성 2호 국내 주도 개발 및 성공적 발사, 국내 고체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위성발사체 상단의 국내 자력 개발,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및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체결을 통한 우주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한·러 협력 추진,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로서의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첫째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둘째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셋째 우주공간의 영역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4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주)데크 방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3월 완주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데크를 방문했다.

지나해 11월 완주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한 (주)데크(대표이사 김광수)는 항공기의 주요품목인 초고온 탄소 복합재와 경량구조용 탄소복합재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다.

이날 김 대표는 박 전대표에게 (주)데크의 생산품목과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뒤,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의 육성에 따른 정책자금 제도 개선 및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을 지속적



으로 발굴해줄 것을 제안했고, 국가 전략 소재 사업의 탄소섬유 국산화와 전북지역 카본밸리 산업의 육성과 탄소섬유 관련 국책연구 기관을 유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대표는 산업기술개발 자금 증대와 자금의 금리인하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요구할 것을 약속했고, 이미 R&D 예산을 GDP 2.99%에서 5%로 늘려 상정을 해 놓았으며, 또한 편성되는 R&D 예산 중 기존 25%의 기초과학분야를 50%로 증대토록 요청한 상태인 만큼, 핵심소재 부품육성사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5일 제2회 청소년 하늘축제

한국항공소년단은 지난 5월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기 성남 서울공항 특별 행사장에서 제2회 청소년 하늘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경인지역 항공소년단원 및 소외계층 자녀, 일반 청소년 및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벤트 행사, 공군군악대와 의장대 공연, 종이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모형 열기구 제작 등을 직접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6대의 항공기의 모기를 연출한 블랙익스플로의 역동적인 에어쇼는 참관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